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다원적 전개 양상[†]

김한배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The Pluralistic Development of Postmodern Landscape Design

Kim, Han-Bai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styles of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have diversified since the emergence of Postmodern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The diversification was mostly influenced by contemporary fine arts and architecture. This study examines the pluralistic development of Postmodern landscape desig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s from those sister arts. In this point of view, the main approaches of Postmodern landscape design are thought to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ormal abstract approach', 'the figurative approach' and 'the new picturesque approach'.

The first category of the formal abstract approach was formulated with the concepts and vocabulary of Minimal Art and Installation Art. Its representative icons such as 'point grids' and 'stripes', and the main concepts such as the sense of 'flatness', 'expansion' and 'materiality' are mostly thought to be originated from these art forms.

The second category of the figurative approach is characterised by the concepts and vocabulary of Pop Art and New Image Paintings. Its representative icons such as 'map' or 'figurative forms' and main concepts like the sense of 'reality', 'context' and 'symbolism' are mostly thought to be originated from these art forms.

The third category of the new picturesque approach was formulated with the concepts and vocabulary of Land Art and Late Deconstructive Architecture. Its representative icons such as 'hybrid', 'layer' and 'fold', and the main concepts such as the sense of 'complexity', 'continuity' and 'reversibility' are thought to be originated from these art form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main stream of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seems to be gradually

[†]: 본 연구는 200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an-Bai Kim,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 +82-2-2210-5620, E-mail : hbkim@uos.ac.kr

moving toward the second and third approach above, in step with the cultural orientation and the dynamism of contemporary urban life. Therefore, the study focused especially on the new picturesque approach which would be in greater need for coping with the hybrid culture today.

Key Words : Postmodernism, the Formal Abstract Approach, the Figurative Approach, the New Picturesque Approach

1. 서론

1. 배경 · 목적

서구의 조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보편화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1980년대 전반에 벌써 George Hargreaves(1983)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장된 시야(Postmodernism Looks Beyond Itself)」라는 논문으로 조경 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입배경과 그 기본성격을 정리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Ian McHarg의 생태학적 결정론 등 과도한 과학적 접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폭넓게 제기되면서 '예술로서의 조경'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합리주의적 근대주의의 조경양식은 서서히 전면에서 퇴조해 가게 되었다(Walker and Simo, 1994).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관행적인 'S·A·D(조사, 분석, 설계로 이어지는 근대주의적 방식)'와 기능주의를 넘어서는 조경설계의 접근방식들이 시도되고 설계언어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모더니즘이 전파되고 있는 양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차태욱, 1993).

이렇게 포스트모던 사조가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에서 조경설계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제 성숙기를 넘어서고 있는 서구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의 최근까지의 전개 경향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모더니즘 조경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의 형성에 있어서도 동시대 미술사조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순수미술 및 건축사조와의 영향관계를 중심축으로 하여 그 경향과 특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2. 범위 · 방법

1)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설계의 기본성격

20세기에 다분히 기능과 과학에 종속되어 왔던 조경설계는 1990년대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탈기능적인 순수형태를 통해 예술적 접근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들은 주로 순수미술을 참조하면서 그 형태언어를 직 · 간접적으로 빌려오게 되었는데, 당시 대표적인 미술사조가 미니멀리즘이었으므로 이 영향 아래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축으로서의 추상적 조경사조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Bradley-Hole, 1999).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의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컨텍스트(context)'와 '지도(map)'를 키워드로 하는 맥락적, 구상적 조경을 들 수 있다. 이는 순수형태보다는 지역성과 주제를 반영하는 조경을 말한다. 미술평론가 Rosalind Krauss가 70년대 말에 이미 모더니즘의 상징인 '그리드(grid)'에 대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상징으로서 '지도(map)'를 제시한 바 있으며(김재관, 1996: 192), Hargreaves는 후일 이러한 논리를 이어받아 '컨텍스트'와 '지도'를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의 새로운 원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Hargreaves, 1983: 60). 여기서 그리드가 구조나 공간을 의미한다면 지도는 현실이나 맥락을 의미한다. 결국 신조경의 중심주제 중 한 갈래는 맥락과 그에 따라 차별화된 장소적 의미의 표현으로 정착된 셈이다. 이는 모더니즘의 환원주의 미학과 기능제일주의에 의해 거세되었던 의미와 상징의 복귀이며, 형태적으로는 재현적이고 서술적인 형태의 조경양식, 즉 구상적 조경이 하나의 주된 흐름으로 성립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앞서의 Krauss(1979)는 이밖에도 포스트모던 시대에 조각과 건축, 조경의 융합 가능성을 대지조각과 관련시켜 예측한 바가 있다. 「조각영역의 확장」이라는 글에서 그는 '대지조각'을 통해 이들 관련 장르들이 융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로 볼 때 포스트모던 문화

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인 장기간 경계의 해체와 재융합은 사실상 대지조각으로부터 촉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부터 '대지 같은 건축', '대지 같은 조경'의 한 사조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18세기 낭만주의 시대 대지의 미학인 '픽처레스크(picturesque) 미학¹⁾'의 새로운 부활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지를 주제로 하는 조경설계의 흐름은 그 외적 맥락을 더욱 확장시켜 시간에 대한 관념까지 수용하면서 다양한 도시적 삶의 움직임과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변화상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Louw-se, 1993)²⁾. 이러한 시간성, 역동성은 탈산업사회의 특징인 불확정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디자인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유동적이고 픽처레스크한 형태의 건축과 조경형태를 등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외적인 기본성격은 크게 보아 '추상적인 형태의 흐름', '맥락적·서술적 형태의 흐름', 그리고 '픽처레스크한 유동적 형태의 흐름' 등 다원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2) 설계경향의 유형화와 연구방법

조경가 Lauri Olin(1988: 158)은 조형예술 일반의 두 가지 전통인 '추상적 경향(formal tradition)'과 '구상적 경향(figurative tradition)'이 조경설계의 전통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주 경향은 모더니즘 시기에 위축되었던 후자의 측면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던 조경에서도 순수한 형태 자체의 미적 질서를 추구하는 추상적 경향과, 경관적 맥락이나 문화적 의미를 표현하려는 구상적 경향의 이원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기하학적 도상 위주의 추상적 경향과 대비해서 극단의 유기적 형태를 지향하면서 건축과 조경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경향이 떠오르고 있다. 즉, 대지조각과 해체주의 건축의 시도에서 출발하여 조경영역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하나의 독자적 경향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가칭 '신 픽처레스크' 경향이 그것이다. 각 문헌들은 이 같은 사조를 '새로운 평면성(New Flatness: Imperiale, 2000)', '우주창조적 건축(Cosmogentic Architecture: Jencks, 1995)', '새로운 경관(New Landscape: Bru, 1997)' 등 다양하게 부

르고 있어 합의된 명칭을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개별 작품의 특징을 언급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새로운 픽처레스크(a New Picturesque)'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이 경향을 '신픽처레스크'로 부르면서 연구를 진행시키려 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 조경'과 '구상적 조경', '신픽처레스크적 조경'의 삼원구조를 최근 포스트모던의 조경 경향의 기본구조로 설정하려 한다. 그리고 이 틀 속에서 각 흐름들의 등장배경과 개념형성과 전개, 주요 사례의 설계적 특징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의 다원적 전개 양상을 규명하고 그들의 한국조경설계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조경의 세 가지 유형 각각의 성립에는 회화, 조각, 건축을 포함하는 시각예술들의 영향이 컸다. 앞으로 진행되는 장, 절 속에서 상술하겠지만 추상적 조경에는 미니멀 미술이, 구상적 조경에는 팝아트와 신형상주의를 포함하는 표현주의 계열의 미술이, 신 픽처레스크 조경에는 대지미술과 해체주의 건축이 각각 유형의 형성과 전개에 동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미니멀리즘이 모더니즘의 환원적 추상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면, 팝아트나 신형상주의 등 표현주의 계열의 미술은 일상세계와 그 의미를 표현하는 일종의 구상적 리얼리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지예술은 20세기 후반 새로운 환경, 생태관의 대두와 함께 등장하여 건축과 조경에 지표면의 평면성과 연속성을 새로운 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복잡성 이론에 기반하여 일체의 도형적 형태를 지양하는 후기 해체주의의 건축이 18세기의 픽처레스크를 연상케 하는 형태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대지예술과 후기 해체주의 건축의 양자는 대지와 경관이라는 주제를 공유한다. 이 새로운 양식은 일종의 건축과 조경의 융합현상 내지 혼성(hybrid)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방법은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설계의 주된 흐름을 이러한 세 가지 접근방법의 구조로 설정하여 놓고, 이들 각각의 성립과 전개과정, 설계적 특징을 직접적 영향관계에 있었던 미술, 건축양식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규명하려는 것이다.

II. 추상적 포스트모던(Postmodern Formalism) 조경의 전개

1. 미니멀리즘의 담론과 조형언어

“미니멀리즘은 현대예술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조로서 모더니즘의 최후의 형태(late modernism)이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초기적 징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Batchelor, 1997: 8)”는 말과 같이 미니멀리즘은 미술에 있어서는 물론 건축과 조경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던적 사조를 선도한 미술사조이다. 미니멀리스트들은 그들 작품에 대해 스스로 ‘직접적’, ‘직선적’, ‘단순한’, ‘선명한’ 형태 등으로 표현한다(앞 책: 68). 사물과 물질 그 자체를 보고자 했던 미니멀리즘의 관점은 극단적인 환원적, 현상학적 태도로서, 동양의 직관주의(도교, 선불교)와 개념이 상통한다고 보인다. 그들이 용안사(龍安寺)의 선정원(禪庭園)을 미니멀리즘의 시원적 예로 자주 인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즉, 이 사조는 물질이나 사물들을 시각적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로만 보려고 했던 모더니즘 추상주의의 분석적, 구축적 입장과는 전적으로 태도를 달리하면서 ‘존재’로서 대상을 보려 한다.

미니멀리즘 조형의 기본 개념은 환원성과 확장성이다(안승홍, 1996: 40). 환원성은 근본형태로의 복귀이고 확장성은 주변공간과의 관계성의 강조이다. 미니멀리즘은 오브제와 인체, 그들을 둘러싼 공간간의 물리적이고 현상학적인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Levy, 1997: 9). 이들 관계성은 특히 연속적 배치(seriality)를 통해서 표현되며 이러한 의도는 미니멀리즘의 후기 형태인 설치미술에서 정점에 이른다. 설치미술은 평면작품이건 입체작품이건 간에 하나의 유니트(단위)의 그 되풀이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작품, 즉 ‘병렬에 의한 작품’을 말한다.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동일규격에 의한 대량생산이란 현상에 대응하고 있는 성격이 있다(방근택, 1992b: 15-37). 설치미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오브제의 기용으로 이를 통해 미술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으로까지 작업범위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다(서성록, 1995: 7-11, 47). 미니멀리즘은 그 자체로는 물론이지만 설치미술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전의 ‘눈’으로부터 몸과 환경, 사회로 표현과 지각수단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조경 영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미니멀리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두 가지의 형태적

도상은 ‘점그리드(point grid)’와 ‘줄무늬(stripes)’이다(그림 1, 2). 미니멀리즘 회화는 추상표현주의의 올오우버(all-over)의 초점없는 평면성을 이어 받았는데(방근택, 앞 책: 1252-1259), 점그리드는 모더니즘의 선그리드와는 달리 길이와 면적 등 양적 내용을 가지지 않고 단지 위치만 가지면서 평면성과 확산성을 보여주기 위해 채택된 전략적 형태패턴이다. 이와 함께 줄무늬(stripes)는 ‘표면’, ‘윤곽’, ‘장’, ‘모듈’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점그리드와 짝으로 미니멀 미술의 도상이 되었다. 줄무늬 패턴은 시각적 평면성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평면성(literal surfaceness)’을 표명한다(이상, 김재관, 1996: 160-177 참조). 즉, 미니멀리스트들은 오브제를 소재로 하여 점그리드나 줄무늬 패턴을 주된 구성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미니멀과 설치미술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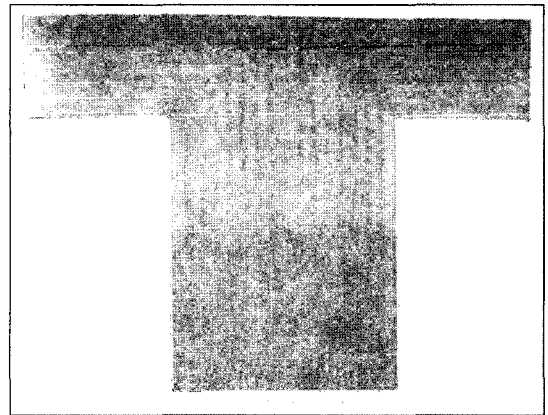


그림 1. Frank Stella: Telluride,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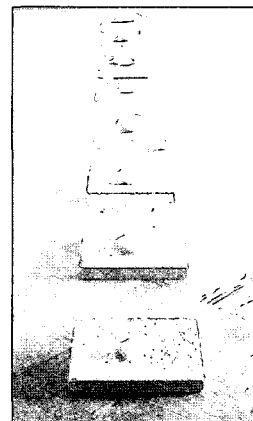


그림 2. Karl Andre: 8 blocks and 8 stones, 1990

태언어들은 거의 그대로 현대 미니멀 조경에 수용되었다.

2. 추상적 포스트모던 조경의 설계언어와 전략

추상적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은 미니멀 미술의 관점과 기법을 수용하여 단순하고 기하학적이면서 주변과 대조되어 강렬한 형태 패턴을 표현하는 소위 형태주의(formalism)적 작품세계를 보여왔다. 미니멀, 또는 환원주의 미술(reductivist art)의 조경설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환원적 기하학의 수용과 재료의 대담, 솔직한 표현이었다. 현대의 혼란된 경관 속에서는 강한 미니멀 형태가 대조적으로 가시성을 갖게 되므로 미니멀 조경은 도시조경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다. 대표적 조경작가로는 Peter Walker와 Michael van Valkenburgh를 들 수 있다.

Walker는 자기의 조경작품을 '답장이 없는 미니멀 정원'이라고 하였다(Johnson, 1991). 그렇지만 Walker의 스타일은 여러 스타일의 혼성물(hybrid)이다(Levy, 1997: 9). 즉, 그는 미니멀과 고전주의에서 공통된 환원적 요소를 찾아내 이들을 경관을 시각적으로 강화하는 요소로 이용하고, 여기에 더해 서술성, 의미, 상징까지 부여하는 일종의 절충적 기법을 사용했다(그림 3). Walker는 조경작품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 '가시성(objective visibility)'을 든 바 있는데 이는 미니멀 조경의 기본전략이기도 하였다. 가시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브제는 주변의 맥락과 대조성을 가지면서 그 자체로서 독립되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Walker, 1997: 22). 이러한 접근방법은 주변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맥락주의와는 반대가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³⁾.

또 다른 대표적 미니멀 조경가로는 Valkenburgh를 들 수 있다. 그는 전형적 미니멀리스트이지만 최근 작업에서는 맥락적이고도 서술적인 표현을 병용한다. 대표작인 <얼음벽> 시리즈들(그림 4)에서 보이듯이 그의 관심은 공간 안에서의 시간의 흐름에 집중되어 있다(Rowe, 1994: III). 재료, 시간, 이벤트의 경험과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의 이해를 표현하면서 특히, 변하는 것(물과 얼음, 식물재료 등)과 변하지 않는 것과의 대조

를 통해서 일종의 우주적 리듬을 보여주려 한다. 즉, 그의 최근작들은 원래 장소성이 부재했던 미니멀리즘의 방식을 지역성과 생태를 이용해서 최근의 맥락주의적 관심에 접목시키려는 것이다(이상 앞글, 7-19 참조).

미니멀 조경은 미니멀 미술의 기본 개념이었던 '물자체(thingness)'를 대지에 적용하여 땅 자체를 오브제화하려 하였으며 특히 Walker가 중심적으로 추구했던 시각적 성격은 대지 본연의 '평면성(flatness)'이었다. 그가 미니멀 조경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점그리드나 평행선들도 모두 이러한 '대지의 평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평행선들은 미니멀리즘의 한 원형으로 숭상되는 일본 고산수정원 모래밭의 비질 자국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투시도적 효과를 변형하기 위해서 모더니즘은 축을 꺾었으나 미니멀리즘은 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경관에서 일루전 효과를 제거하고 땅 자체의 평면성을 보게 하려 하였다. 수직적 건축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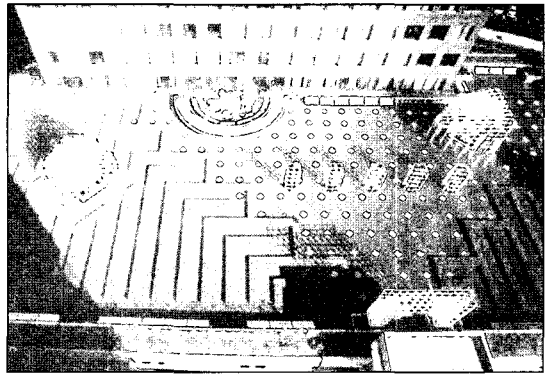


그림 3. Peter Walker: Cambridge Roof Garden,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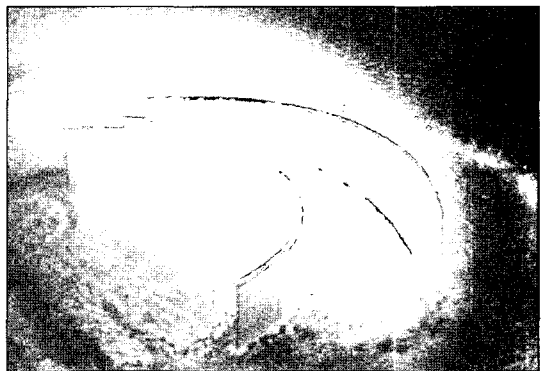


그림 4. Michael van Valkenburgh: Radcliffe Ice Wall, 1988

각각 우위에 대항하여 대지 고유의 평면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미니멀 조경의 문제점으로는 원로 조경가 Laurie Ol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경의 대상인 현실 자체가 아닌 외부(미술)로부터 직접 빌려온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Olin, 1988: 155).”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가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반면, 미니멀 조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잠재력으로는, 미니멀 조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근원적 형태(primary form)들은 일차적인 가시적 효과를 넘어서서 부수적으로 상징과 의미전달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환원주의 기하학은 역사와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는 형태들이며 그런 까닭에 보는 이에게 상징적 의미를 환기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Jory Johnson은 이런 의미에서 미니멀 조경을 ‘도상적 조경(iconic landscape)’이라고 했다(Johnson, 1991: 188). 이와 함께 미니멀리즘은 극동의 명상종교(선불교 등)로부터 영감을, 이태리 르네상스로부터 순수기하형태와 비례를, 미국 세이커교운동으로부터 단순성을 얻고 있다(Bradley-Hole, 1999: 6-7)⁴⁾. 이런 면에서 미니멀 조경을 추상적 조경의 전통에 서있다고 해도 의미와 서술이 전면적으로 배제된 순수한 형태 자체만의 구성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상징과 명상적 표현은 앞으로 추상적 미니멀 조경이 이후 서술될 구상적 조경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접점이자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구상적 포스트모던(Postmodern Figurativism) 조경의 전개

1. 팝아트, 신형상주의 담론과 조형언어

20세기 후반의 미술에서 감지되는 중요한 변화는 구상성의 복원이다. 대량산업사회의 풍경을 재현하려는 팝아트로부터 시작된 이 흐름은 누보레알리즘을 거쳐 신형상주의로 이어지면서 전 시대의 구상적, 서술적, 표현적 미술의 맥을 복구하게 되었다⁵⁾. 팝아티스트들은 ‘뉴리얼리스트’, ‘도회지의 민속예술가’라고도 불리는

데 매스미디어나 대량 생산품들(가짜-kitsh-)을 통해 새로운 산업사회의 현실을 그려내려고 한다는 뜻이다(방근택, 1992a: 1080). 이 예술은 소비의 영역에 속했던 대중문화를 예술적, 학문적 위치로 격상시켜 담론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기능성을 중시했던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향하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이영화, 2001: Atkins, 1990: 121-122). 대표작가인 Andy Warhol은 한 화면에 복사된 같은 사진(대량생산품이나 대중연예인)들을 여러 장을 병열한다. 이는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표상인 슈퍼마켓과 창고의 이미테이션이다(방근택, 앞 책: 1089-1091)(그림 5 참조).

신형상주의, 신표현주의 또는 뉴이미지라고 불리는 미술양식은 1980년 초에 새로 등장한 독일 미술과 이탈리아 미술을 설명하는 표현들이며 재현적 이미지를 거부한 모더니즘과 개념미술에 반발하여 나타난 미술사조를 말한다. 이는 개방적 서술성에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며 회화전통의 부흥을 말한다(Godfrey, 1992). 이들은 구상적 이미지의 재등장뿐 아니라 역사화를 주제의 원천으로 차용한다는 점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대표하는 미술현상이며 20세기 초의 표현주의 기법을 답습하면서 사회비평적인 작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그림 6 참조). 이들의 영감의 원천은 Turner(1775-1851)와 Constable(1776-1837) 등의 17세기 풍경화와 표현주의 그림들이다(이상, Atkins, 1990: 104-10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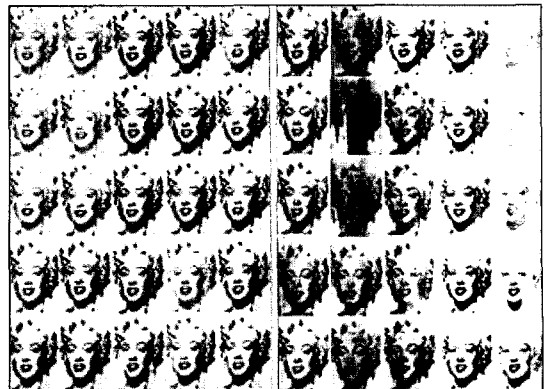


그림 5. Andy Warhol: Marilyn Monroe,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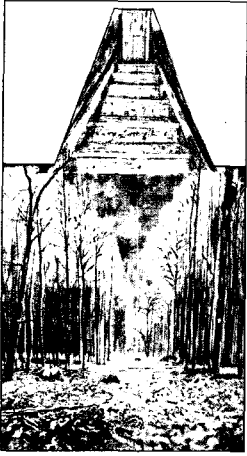


그림 6. Anselm Kiefer: Resurrexit,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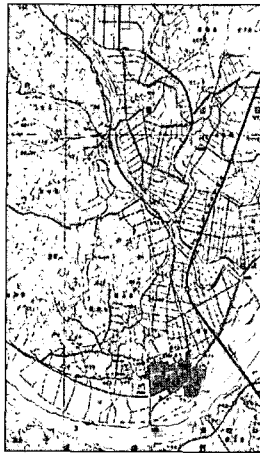


그림 7. An Ordinary Map

2. 구상적 포스트모던 조경의 설계언어와 전략

구상적 포스트모던 조경은 팝아트나 초현실주의, 또는 신행상주의 등 크게 보아 구상적, 표현주의적 미술의 기본관점과 표현기법을 수용하여, 주변환경과의 맥락, 서술적·소통적 형태, 상상적 경관 등을 표현하려는 접근방식이다. 조경진(Zoh, 1993)의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의 양 대분류(역사주의와 해체주의)에 의하면 역사주의와 많은 부분이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작가로는 Martha Schwartz, George Hargreaves, Geoffrey Jellicoe 등을 들 수 있다.

Schwartz는 미니멀리스트와 팝아티스트 사이의 중간적 성격의 작가이다. 스스로 “기하학적 형태의 신화적 질”을 중시한 그는 초기에 미니멀적 작업들로부터 출발하였으나 그의 차별성은 산업생산품을 과감하게 오브제로 사용하는 팝아트적 자세에 있었다. 그는 Andy Warhol, Jasper Jones, Robert Rauschenberg 등의 팝아티스트들이 평범한 일상적 환경을 다룬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조경에 이를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Schwartz, 1993: 263-264). 그의 작품은 일상 사물과 재료들의 이상블라쥬(asssemblage)이다. 일상적인 장소를 일상 재료를 통해 일신(transfigure)시킨다. 그의 특징은 경계의 해체에 있다. 공공미술과 조경, 대중문화와 조경, 고급예술과 대중예술, 영구성과 일시성

등의 경계 해체, 이러한 작업태도가 그를 포스트모던 계열에 위치시킨다(이상, Meyer, 1997:108 참조).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네코타이어가든(Necco Tire Garden)>은 기성 페타이어를 사용한 설치미술적 작품인데 그 평면에서 어긋나는 이중 그리드의 배치방식을 통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맥락성을 표현했다고 본다(Hargreaves, 1983)(그림 8 참조).

Hargreaves는 미니멀, 구상조경, 신티쳐레스크의 전 영역에서 폭넓은 행보를 보이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이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의 전 영역에 걸쳐 있기는 하나 전문한 그의 에세이(1983)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는 기본적으로 맥락주의자이다. 그는 모더니즘 조경의 ‘내적 완결성’을 비판하고 주위환경에 ‘개방적인(open-ended)’ 설계를 지향하려 했다(Rademacher, 1996: 15). 이런 면에서 Hargreaves의 <빅스비파크(Byxbee Park)>는 물리적 컨텍스트를, <산호세플라자파크(San Jose Plaza Park)>는 역사문화적 컨텍스트를, <캔들스틱포인트파크(Candlestick Point Park)>는 자연적 컨텍스트를 구현하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빅스비파크(Byxbee park)>에서 미니멀리스트 조각을 연상시키는 절단된 전봇대들의 점그리드형 배치는 경사지 언덕 위에 또 하나의 가상평면을 만들면서 공원경관을 주변으로 시각적, 개념적으로 확장시키려 했다. 즉, 자연의 맥락(생태성)을 직설적이기 보다는 상징적,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산호세플라자파크>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산업을 맥락적으로 표현하였고 <캔들스틱포인트파크>는 경관의 대상화를 지양하고 장소특정적이면서 열린 구성을 시도한 중요한 작품이다(이상 Rademacher, 1996: 138 참조).

한편, Richard Haag는 팝과 누보레알리즘의 중간에서 서서 시간의 맥락을 작품의 주제로 도입했다. 그는 <개스워크파크(Gaswork Park)>에서 공장기계를 변조하여 추상조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비자의식적인 이상블라쥬(asssemblage)이다(Johnson, 1991: 199). 폐기된 일상용품들을 한 작품 속에 모아 현실세계를 비평적으로 재현하려 했던 누보레알리즘(Nouveau Realisme)의 이상블라쥬 기법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관을 통해 환경과 역사를 재활용(recycling)하려 했다.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팝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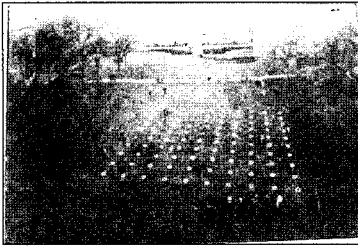


그림 8. Martha Schwartz: Necco Tire Garden,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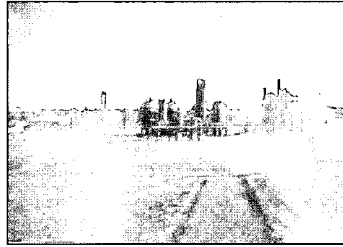


그림 9. Richard Haag: Gas Works Park,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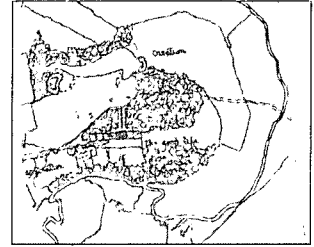


그림 10. Geoffrey Jellicoe: Sutton Place, 1982

또는 네오버네킴라(neo-vernacular)로 볼 수 있는 동시에, 인프라스트럭처와 경관을 한 덩어리로 보려고 하는 최근의 ‘랜드스케이프어버니즘(Landscape Urbanism)’의 태도와도 부합되는 발상이다(배정환, 2004 참조)(그림 9 참조).

현대조경작가 중 구상적, 상징적 형태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Geoffrey Jellicoe일 것이다. 그만큼 작품에서 구사하는 양식의 폭이 넓은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고전주의부터 근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든 사조를 넘나들며 작품을 해온 작가이다. 그의 인생과 작품에 영향을 주었던 두 축은 현대미술과 무의식이었다. 현대미술 중에서도 Paul Klee나 Joan Miro, Rene Magritte 등 초현실주의에 경도했었다. 그는 “경관 속에 존재하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 심층적인 것”(Landecker, 1992)과 “몸이 즐기고 눈이 보는 것을 초월하는 상상력의 경관(Lyall, 1991)”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 그는 근대주의를 지나 온 조경가 중 가장 서술적이고도 상징적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케네디 기념정원(1964)>은 정치가 겸 작가 John Bunyan의 「필그림의 여정」과 르네상스 화가 Giovanni Bellini의 「영혼의 여정의 알레고리」에서 암시를 받아 설계된 ‘알레고리 정원’이다(조택연, 2002: 222). <수튼플레이스(Sutton Place, 1980-86)>는 창조의 활동, 삶의 연속성, 미래를 위한 인간의 꿈 등 세 가지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물고기 모양의 호수와 그 주변의 세 개의 언덕은 각각, 아버지, 엄마, 아기를 상징한다(Lyall, 1991: 71). 이런 면에서 이 정원은 ‘초현실주의 정원’인 동시에 신행상주의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신화적 주제의 표현과도 부합된다(그림 10 참조).

구상적, 서술적 조경설계에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사법의 도구는 ‘은유’이다. 이는 같지 않은 것들끼리의 등항렬화(equation)를 통해 다른 어떤 것의 의미를 환기시키려는 방법(Olin, 1988: 163-165)으로 은유는 모더니즘 이후의 조경에서 의미와 상징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은유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도상(iconography), 우화(allegory), 그리고 담론(narrative)과 같은 것이 쓰인다(차태욱, 1993: 77). Schwartz나 Hargreaves, Haag, Jellicoe 등 구상주의 작가들 공통의 표현언어는 플라주와 몽타주, 이상블라주 등 초현실주의와 누보레알리즘 회화에서 사용되던 기법으로 현실사회와 무의식을 직유 내지 은유하고 있다.

IV. 신티픽처레스크 포스트모던 건축 · 조경(Neo-Picturesque Architectural Landscape)의 전개

1. 대지미술, 후기해체주의 건축의 담론과 조형언어

미니멀리즘에 대조적 입장을 취하는 반형태(Anti-Form) 미술의 사조로는 프로세스 아트와 대지예술 등이 있었다. 이들은 비(非)그리드적인 영속성 없는 재료와 형태를 탐구한다. 즉, 포스트모던 미술은 모던과 미니멀의 그리드 형태를 해체시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려 한다. 이러한 양식의 특징은 애매함, 모순, 복잡성, 비일관적이고 기묘하며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김재관, 1996: 196-210 참조). 대지조각의 선구자 Robert Smithson은 초기에 미니멀리즘 작가로 출발하였으나 대지조각 이후에는 미니멀리즘의 정형성을 넘어서게 되었다(방근택, 1992b: 1259). Smithson 등의 대지예술가들에 의해 자연과 대지의 힘은 다시 중요한 주제로 돌아오게 되었다(Beardsly, 1998). 대지미술 등 환경으로 확산되는 융합적 미술은 합리주의를 넘어서는 우연하고도 신비한 복잡성의 개념을 조경의 새로운 도상으로 제공했다. 이들은 오브제의 우월성 대신 컨텍스트를 더욱 중시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의 작업은 외부 지향적인 것이었다(차태욱, 1993: 33). 대지조각가들이 쓰는 환원적 형태는 원시적 조형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엄미(Sublime)'의 현대적 표현이기도 하다. 18세기의 장엄미는 픽처레스크 미학의 중심개념이었다(Beardsley, 1998: 59)(그림 11 참조).

2차대전이 끝나면서 건축에서는 독단적인 기능주의의 절대공간을 탈피하려는 시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들을 상대주의 공간운동이라 한다(임석재, 1999: 204). 이 중에서도 보다 급진적으로 합리주의를 부정해 나간 사조는 해체주의 건축이다. 해체는 의도적으로 '폐허와 같은 경관을 만드는(making of ruins)' 서구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Rosenblum, 1991: 62-63). 건축평론가 위글리는 해체주의 건축을 대표하는 두 개의 아이콘으로 '블베어링'과 '내바다 사막의 육류저장소'를 든 바 있는데 전자가 플라톤적 형태의 환원적 기계미학을 상징한다면, 후자는 어지럽고 흠집난 폐허의 뒤틀린 이미지로서(이종건, 1999: 104-122) 후기 해체주의의 픽처레스크한 형태를 암시한다. 이런 면에서 해체는 낭만주의 조경의 핵심이었던 픽처레스크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Jencks, 1990: 205). 젠크스에 의



그림 11. Robert Smithson: Spiral Jetty, 1970

하면 해체주의 건축은 초기의 신구성주의적인 접근에서 시작하여 점차 복잡성 미학 쪽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체는 궁극적으로 영역경계를 해체하고 장르간 융합과 혼성화(hybridization)를 이끌었다. 현시대는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며 조경, 건축은 물론, 타 도시공간들과의 하이브리드도 필요하다(Huet, 1993). 아이젠만, 자하하디드 등의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건축물, 조경, 도시공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접기(fold)를 사용했다(Jencks, 1995: 55). 이 융합의 미학이 새로운 픽처레스크로 나타나고 있다. 80년대의 상대주의 공간(미니멀리즘의 절대주의 공간과 대응)의 대표적 사용어휘로 겹공간과 해체주의 공간, 건축적 프로미나드, 실내광장, 미로, 픽처레스크 등이 있었고 그 조형기법은 싸기(크리스토)와 접기(아이젠만, 게리), 벗기기(사이트), 해체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석재, 1999). 이들 건축어휘들은 실제 전통적으로 대지의 지형과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조경설계의 고유언어였으며 최근의 사이트나 암바스 등 표현주의적 그린건축의 공유어휘이기도 하다.

해체주의의 또 다른 흐름은 '표면(surface)'과 '표피(skin)'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다. 표면과 표피를 중시하는 건축은 역시 지면을 통해 결국 대지와 몸의 경관으로 이어진다(이영화, 2001: 139). 복잡하게 접히고 뒤틀린 표면들은 마치 순수하게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것 같이 보인다. 이들 구조물의 표면들은 독립적인 오브제로 보이기도 하지만 기존 대지경관의 연장으로 인식된다(Imperiale, 2000: 43)(그림 12 참조). 이 모든 일련의 현상들은 낭만주의적 선회이자 경관적 복잡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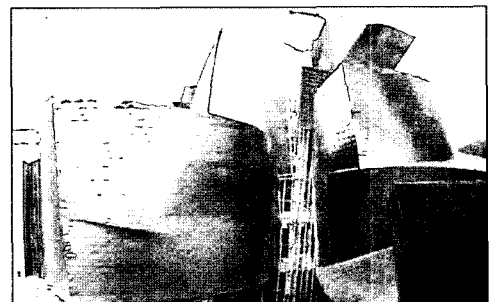


그림 12. Frank O. Gehry: Bilbao Guggenheim Museum, 1997

서 건축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즉, “세상 밖으로”는 이 시대 건축, 조각, 조경의 공통된 지향이며 18세기 조경의 미학이던 픽처레스크의 21세기형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 픽처레스크 포스트모던 건축·조경의 설계언어와 전략

1) 혼성(hybrid)과 중첩(layering)

혼성은 회화와 조각에서 보이는 전위적 가로지르기(Trans Avant-Garde)라 할 만하다(Wines, 1986: 17). 이 혼성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은 조경, 건축, 조각 간의 장르간 융합일 수도 있고 이질적 공간과 시간 간의 융합일 수도 있다. 모더니즘이 분류와 분리의 시대였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들 분리되었던 부분들 간의 재융합을 기본 태도로 하는 것이다. 해체주의 건축조경의 그룹 SITE의 리더, James Wines에 의하면 최근의 후기구조주의자들의 건축이론의 새로운 흐름은 유연성, 흐르는 듯한 형태, 이질적 요소들의 부드러운 혼합 등으로 요약된다고 한다(Wines, 1995). 실제 Wines는 ‘정원으로서의 건축(정원 옆에 있는 건축이 아닌)’을 통해 건축과 조경을 해체,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생태성과 서술성을 구현하려 하였다(변우일, 1994: 34). Ambasz는 건축을 더 융해했다. 경계는 이완되고 오브제는 주위 환경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그림 13 참조). 구조물, 벽체, 입체와 공간 모두가 땅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마치 이 땅은 만능의 용매인 것 같다(Muschamp, 1993: 10). 이러한 장르간 융합형의 건축인 오늘날의 생태건축은 계보를 따지자면 근대주의 시대의 유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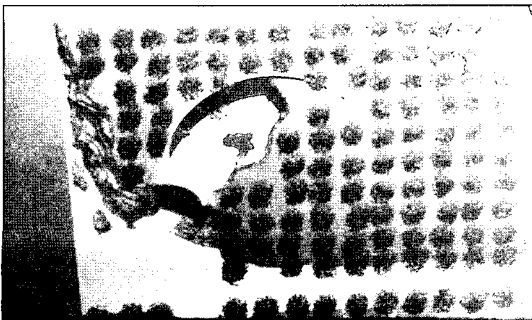


그림 13. Emilio Ambasz: Phoenix History Museum, 1990

건축이나 표현주의의 전통과 근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Jencks, 1995: 99). 이들 유기체건축이나 표현주의 건축은 크게 보아 낭만주의 건축의 계열에 포함되며 최근의 신픽처레스크 건축과 같은 계보로 볼 수 있다.

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방법의 하나가 ‘중첩’이다. 중첩(layering 또는 superimposition)은 다수의 상호일치하지 않는 레이어들의 중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중첩을 통한 설계는 형태적, 생태적, 역사적, 사회적 관점을 동시에 다층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모더니스트의 기능주의적 토지이용분할(functional zoning)의 일원적 문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Beardsley, 1998: 213; Turner, 1996). 전통적 계획과는 달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가지 해석, 용도와 활동, 변형에 개방적인 것이 중첩에 의한 설계안의 특징이다(Cosgrove, 1999: 235-239). 이들은 짜넣기(interweaving)를 포함하여 무작위한 중첩을 통해 형태적으로 개별공간들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Jencks, 1995: 92). 적층화의 미학, 모호함, 투명성과 병치는 이렇게 해서 여러 층의 도시조직이 중첩된 다원적이고 가변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Jencks, 1995: 77).

2) 표면(surface)과 접기(fold)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후기 해체주의 건축의 또 다른 흐름은 표면과 표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표면의 6대 전략은 표면의 ‘중층화(thickening)’, ‘주름(folding)’, ‘새로운 재료(new materials)’, ‘비확정적 용도(non-programmed use)’, ‘가변성(impermanence)’, ‘움직임(movement)’ 등이다(Wall, 1999). 건축표면의 자유로운 조형은 예측불허의 다양한 주름과 복곡면들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대지와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바닥의 역동적 재구축은 현대의 과잉된 대중문화의 활동(끊임없는 이동, 소비, 과밀, 스펙터클, 정보,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공간 형태적 선택이기도 하다(앞 책). 부정형적인 공간이 가변적이고도 유연한 활동을 수용하고 생성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접기는 상반된 질들을 성취하려는 기법이다. 이는 방향의 급전환을 뜻한다. 플라지와 같은 다원주의 건축에

서 상이한 측면들을 융해시킬 수도 있다. 조경에서 접기는 방향의 전환 그리고 상반되는 전망들을 연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래로 사용해 왔던 기법이다 (Jencks, 1995: 53). 접기 건축에서 많이 보이는 지그재그형, 비스듬한 각도, 기울어진 형태, 균열, 방향의 급변 등은 자기유사성, 비선형, 조직적 심층성 등 복잡성 이론의 많은 부분들을 보여준다. 이중에서도 방향의 급변은 국면의 전환을 야기한다(Jencks, 1995: 62). 접기 건축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아마 영국의 건축그룹 FOA (Foreign Office Architect)의 <요코하마 페리터미널> 일 것 같다. 소위 건축적 경관(architectural landscape)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이 대형건물의 옥상부에 영국의 픽처레스크 정원을 연상케 하는 물결치는 지형을 창조해 놓았다(그림 14 참조). 이러한 인공의 대지는 "형태의 공간보다는 시간에 따른 사건의 공간으로 표면은 연속된 장을 창조하기 위해 접혀지고 뒤틀려져 새로운 도시표면의 전략으로 사용(Wall, 1999)"되고 있다. 조경에서 접기의 예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나 Hargreaves가 <테호트랑카오 공원(Parque do Tejo e Trancao, 1994: 그림 15 참조)>등 여러 강변공원에서 시도했던 '해체적 방죽(deconstructed levy; 스스로의 명명)', 그리고 젠크스가 최근 자기 집 마당에 복잡성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조성한 <우주론적 정원(Cosmological Garden, Scotland, 1990)>, 스페인 조경가 Andea Arriola와 미국조각가 Beverly Pepper가 공동제작한 바르셀로나 북역공원 내의 <경관의 물결(Landscape Waves, Barcelona, 1991: 그림 16)>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경평론가 Susan Rademacher는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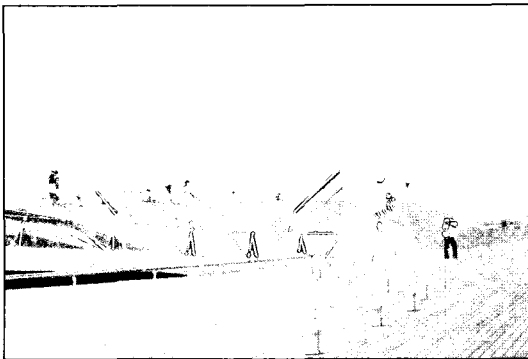


그림 14. FOA: Yokohama Ferry Terminal, 2002



그림 15. George Hargreaves: Parque do Tejo e Trancao,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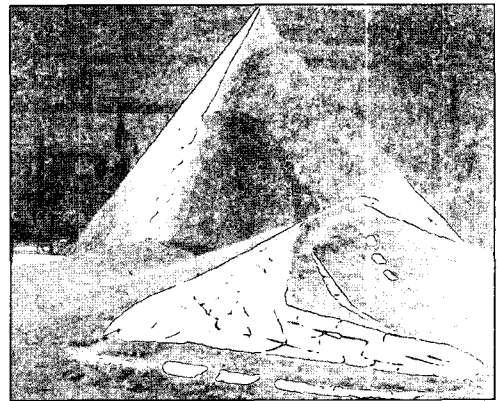


그림 16. Andea Arriola · Beverly Pepper: Landscape Waves, 1991

새로운 풍경양식들을 포괄하여 '21세기의 픽처레스크'라고 불렀다.(Rademacher, 1996). 이들 새로운 픽처레스크는 18세기와 같은 회화적 자연의 모방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인식과 현대 도시활동의 불화적성을 수용하려 한 전략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Hargreaves가 시도한 '해체적 방죽'의 교훈은 단지 기능이나 조형상의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수리학에 근거한 지형의 조각적 구성을 통해 우수배수를 저속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위해 선택되었다(Beardsley, 1996: 19-20)는 점이다. 생태학적인 자연의 힘을 접기를 연상시키는 대지조각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세 가지 세

표 1.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유형과 특징 (저자 작성)

포스트모던 조경의 유형	미술사조 / 담론	작가	설계도상 / 전략
추상적 조경	미니멀 미술 · 설치미술	Walker, Valkenburgh	- 포인트그리드(point grid), - 줄무늬(stripes)
	환원, 명상, 존재, 근원도형		- 평면성, 확장성, 불성
구상적 조경	팝아트, 신형상주의 회화	Schwartz, Hargreaves, Haag, Jellicoe	- 지도(map), - 비유적 형상(figurative), - 이상블라주(asmontage)
	현실, 초현실, 서술, 표현		- 맥락성, 은유, 상징
신틱처레스크 건축 · 조경	대지미술, 후기해체주의 건축	FOA, SITE, Ambasz, Hargreaves	- 혼성(hybrid)과 중첩(layering), - 표면(surface)과 주름(fold)
	복잡성, 시간성, 자연, 생명, 몸		- 융합, 연속성, 회화성, 가변성

부사조 각각을 그의 성립에 영향을 준 미술사조와 결과로서의 사조별 설계도상, 설계전략 등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V. 결론: 종합과 전망

본 연구는 모더니즘 조경설계와 미술과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이전 논문(2001)의 후속편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설계의 다양한 흐름들을 유형화하여 그 각각의 기원과 전개양상을 인접분야인 미술과 건축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고찰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합리주의 일원론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다원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까지의 설계 경향은 크게 추상적 접근과 구상적 접근, 신틱처레스크적 접근으로 집약된다고 보인다. 이 중에서도 마지막의 신틱처레스크적 접근은 아직은 초기적 상황이고 그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아 앞으로도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보인다.

이들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서구중심의 최근 사조들 모두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만은 없다.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⁶⁾. 이들 중 특히 추상주의의 단순성과 질서는 서양의 합리주의 전통에서 배태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격변의 시대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한다(Jencks, 1995: 28). 이런 면에서 단순하고도 강렬한 형태패턴의 시각성에 집중하는 미니멀 조경의 특징은 스스로 장점이자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를 헤쳐나기 위한 한 방법이 미니멀한 형태이면의 명상적이고 우주적인 표현을 심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⁷⁾. 조경설계가 진정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시각적 미학을 넘어 지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김영대, 1993).

요약해서 말하자면, 포스트모던의 성숙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설계가의 가치인식은 점차 구상적 접근과 신틱처레스크적 접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인다. 먼저, 새롭게 재등장한 구상미술이 단절되었던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의 회복과 일상성의 재인식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구상적 조경은 문화적 의미의 표현과 그를 통한 환경의 소통 가능성의 증진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조경에서도 그간 과도한 형태주의의 집착에 따른 형태와 의미 간의 괴리를 좁히고 소통적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리라고 보인다(조경진, 2003).

신틱처레스크 사조는 단순히 건축과 조경의 장르간 융합 가능성을 넘어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양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어버니즘과 형태적, 이념적으로 부합되는 등 여러 면에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범위를 좁혀 구체적 사례인 하그리브스의 작품에서

보듯이 이 경향의 조경설계가 18세기의 회화적 자연의 모방을 넘어서서 자연생태의 과정과 힘을 기술적·예술적으로 표현하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진보적인 태도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아직도 표피적인 자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경에 있어 반성과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신피쳐레스크 건축·조경의 흐름은 아직도 실험기의 단계이기는 하나 그 역동적인 확장세로 보아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의 주류양식으로 입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에서 경관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축·도시의 신피쳐레스크의 물결에 조경계가 능동적,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본다.

- 주 1. 피쳐레스크는 건축과 조경의 회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18세기말~19세기초의 예술사조로 그 등장은 18세기초의 신고전주의의 정형성에 대한 반발에 부분적으로 기인하기도 한다(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Article-www.britannica.com). 피쳐레스크는 낭만주의 시대 회화, 정원술, 건축, 여행술 등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된 미적 취미를 말한다. 전기의 고전적 피쳐레스크와 후기의 낭만적 피쳐레스크가 있었다. 우리가 아는 본격적 피쳐레스크 개념은 주로 후자로 풍경화풍의 건축과 정원미를 말한다. 낭만적 피쳐레스크는 거칠음, 불규칙성, 폐허 등 정돈되지 않은 비장미를 미적 이상으로 한다(김진희, 1995). 경관미론에서 프라이스는 뷰티와 서브라임에 포함되지 않는 제 3의 미의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피쳐레스크이다. 이는 전원적이고 투박하고, 불규칙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경관미이다.
- 주 2. 독일의 건축도시평론가 알렉스 윌은 현대 대도시의 특징을 동태적 도시로의 변화로 들면서 근대의 정태적인 나무구조가 아닌 확산하는 '뿌리줄기(rhizome)'의 구조와 닮아간다고 하였다(Wall, 1999). 조경이론가 코너(James Corner)가 '동사로서의 경관(landscape as verb)'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경관에서의 과정과 행위를 강조하거나(Coner, 1999) West8의 리더, Adrian Gueze가 '무대로서의 공원'이라는 접근을 통해 공원을 도시의 삶이 연출되고 관찰되는 곳으로 보는 것(Louwerse, 1993) 등은 모두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시간 속의 경관'이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주 3.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중심적 설계개념을 든 바 있는데 '연속성(seriality)', '평면성(flatness)', 그리고 '제스처(gesture)'가 그것이다. 연속성은 미니멀 조각가 저드(Judd, D.)의 바윗돌의 연속 선형과 점그리드적 배치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고, 평면성은 안드레의 작품에서 주로 착상을 얻은 것으로 주로 점그리드에 의해 지표면의 평면성을 강조하고 주변보다 시각적으로 강하게 한다. 제스처는 일종의 전체를 통괄하는 선적인 통합요소인데 환경예술가 크리스토토(Cristo)의 '달리는 천막(Running Fence)'에서

주된 영감을 얻은 것이다. 그는 수로나 담장, 수목열식 등을 통해 제스처를 표현하고 있다(Thompson, 1992: 87).

- 주 4. 이와 같이 양 문화 간의 환원적 접근의 시각적 결과물들(용안사 석경과 미니멀 작품들)이 서로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차이점은 미니멀리즘이 수학적 또는 기하학적 환원을 통해 대상 그 자체를 보게 하려 했다면 동양의 선불교는 철학적 또는 관념적 환원을 통해 대상 너머의 영원성을 보게 하려 했다는 차이가 있다.
- 주 5. 1940년대 이후 서구미술은 정형과 비정형의 이분법으로 나뉘어진다. 현대미술의 제 경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한 책자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미술을 23개의 사조로 구분 열거하였는데 그 중에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신행상주의 등 비정형의 미술이 19개로 83%를 차지하고 있다(Atkins, 1990). 그렇다고 비정형이 추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근으로 가까워올수록 이 쪽의 경향이 더욱 세를 넓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주 6. 특히 이용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과도한 형태적 실험의 사조는 실제 적용단계에서 자주 그 적절성이 문제시되어 왔다. "공원은 희망과 미래에 관한 것이므로 파편화(fragmentation)와 해체는 미래의 상징으로 부정적이고 비생명적이다(Gueze, 1993: 54)." 이런 면에서 "라벨렛 공원도 지나치게 미래주의이고... (플러그인시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플러그인파크다. ... 역사와 기억을 이해하고 도시를 만들어 왔던 디자인 없는 디자인을 존중해야 한다(Huet, 1993: 20-21)."는 등이 대표적인 비판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예견되는 환경설계의 언어는 형태적이기보다는 심리적, 합리적이기보다는 우주적, 애매하기보다는 정보적, 안정적이기보다는 가변적, 단호하기보다는 불확정적, 추상적이기보다는 서술적인 것이 추구될 것이다(Wines, 1986: 19)."와 같은 포괄적인 전망으로 이어진다.
- 주 7. 필자의 관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조경과 건축, 고가구, 심지어는 한글 등 생활환경 속에서도 미니멀리즘과 연결될 수 있는 양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들은 당대의 세계관이 응축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현대 디자인에서도 재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용문헌

1. 김영대(1993) 모더니즘과 그 이후의 세계적 조경의 흐름에 관한 한 시각. 월간 환경과 조경. 1993. 11.
2. 김재관(1996) '그리드Grid'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진희(1995) 영국풍경식정원의 미 '피쳐레스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한배(2001) 모더니즘 조경설계에 미친 미술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9(4): 53-66.
5. 방근택 편(1992a) 세계미술대사전 서양미술(IV)-네오다다이즘~반(反)표현주의-. 서울: 한국미술연구소.
6. 방근택 편(1992b) 세계미술대사전 서양미술(V)-미니멀아트

- ~용어사전-. 서울: 한국미술년감사.
7. 배정환(2004)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조경.
 8. 변우일(1994) 조경설계론-제임스와인즈와 푸른 건축-. 서울: 도서출판 동별당.
 9. 서성록(1995) 설치미술감상법. 서울: 대원사.
 10. 안승홍(1996) 현대조경설계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영화(2001) 감성공간사. 서울: 한울문화출판.
 12. 이종건(1999)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서울: 도서출판 발언.
 13. 임석재(1999)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의 공간. 서울: 시공사.
 14. 조경진(2003) 프레테릭 로 옴스테드의 도시공원관에 대한 재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0(6): 26-37.
 15. 조택연(2002) 디지털문명이 건축을 변혁시킨다. 지식의 최전선. 서울: 한길사.
 16. 차태욱(1993) 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나는 조경의 새로운 흐름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Atkins, R.(1990) 박진선 역(1994) 현대미술의 개념놀이(Art Speakes) 서울: 시공사.
 18. Batchelor, D.(1997) Minimalism. Cambridge, UK,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 Beardsley, J.(1996) "Entropy and the New Landscape". Process Architecture(1996), Hargreaves: Landscape Works, Tokyo, Process Architecture Co., Ltd., pp. 14-28.
 20. Beardsley, J.(1998) Earthwork and Beyond -. Third Edition. New York, Cross River Press, Ltd.
 21. Bradley-Hole, C.(1999) The Minimalist Garden. New York, The Monacelli Press.
 22. Bru, E.(1997) New Landscape. Barcelo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23. Comer, J.(1999) Introduction, Recovering Landscape. N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4. Cosgrove, D. edit.(1999) Mapping. Reaktion Books Ltd.
 25. Godfrey, T. 저 배경숙 역(1992) 신표현주의(New Image). 서울: 열화당.
 26. Gueze, A.(1993) Moving Beyond Darwin, Modern Park Design. Amsterdam: THOTH publishers.
 27. Hargreaves, G.(1983) Post Modernism Looks Beyond Itself. Landscape Architecture July/August 1983, pp 60-65.
 28. Huet, B.(1993) Park Design and Urban Continuity. Modern Park Design. Amsterdam: THOTH publishers.
 29. Imperiale, A.(2000) New Flatness: Surface Tension in Digital Architecture. Basel, Birkhauser-Publishers for Architecture.
 30. Jencks, C.(1990) The New Moderns. London, Academy Editions.
 31. Jencks, C.(1995) The Architecture of the Jumping Universe. London, Academy Edition.
 32. Johnson, J.(1991)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Abbeville Press.
 33. Krauss, R.(1979) 박신의 역(1987) 조각영역의 확장(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현대미술비평 30선, 계간미술 편, 중앙일보사, pp. 204-210.
 34. Landecker, H.(1992) "Sir Geoffrey Jellicoe: Unity among All Things", Profiles in Landscape Architecture. Washington, D.C., America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35. Levy, L.(1997) "Dialogue with the Land: The Art of Peter Walker". Walker, P. eds. (1997) Minimalist Gardens. Washington, D.C., Spacemaker Press.
 36. Lyall, S.(1991) Designing the New Landscape.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37. Louwse, D.(1993) Why Talk about Park Design? Modern Park Design. Amsterdam: THOTH publishers.
 38. Meyer, E. K.(1997) "Transfiguration of the Commonplace". Martha Schwartz: Transfiguration of the Commonplace. edited by Spacemaker Press, Washington, D.C., Spacemaker Press.
 39. Muschamp, H.(1993) "Mission into Space". Emilio Ambasz: 1986-1992, edited by A+U (April 1993 special issue). Tokyo, A+U Co., Ltd.
 40. Olin, L.(1988) "Form, Meaning and Expression in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Journal (Fall 1988), pp.149-167.
 41. Rademacher, S.(1996) "Introduction: Toward Site Specificity". Process Architecture eds.(1996) Hargreaves: Landscape Works, Tokyo, Process Architecture Co., Ltd., pp. 8-13.
 42. Rosenblum, R.(1991) "Towards a Definition of New Art". New Art, edited by Papadakis A, et al.,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43. Rowe, P. G.(1994) "With Time in Mind". Design with the L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Michael van Valkenburgh, edited by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iv-v.
 44. Schwartz, M.(1993) "Landscape and Common Culture since Modernism".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edited by Treib, M.,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pp. 26-265.
 45. Thompson, J. W.(1992) "Peter Walker: A Passion for Restraint". Profiles in Landscape Architecture, edited by ASLA, Easton, Maryland, Waverly Press, pp. 84-91.
 46. Turner, T.(1996) City as Landscape. London, E&FN SPON.
 47. Walker, P., and M. Simo(1994) Invisible Gardens. Cambridge, MA, MIT Press.
 48. Walker, P.(1997) "Classicism, Modernism and Minimalism in the Landscape". Designed Landscape Forum I, Designed Landscape Forum eds.(1998), Washington, D.C., Spacemaker Press, pp. 17-24.
 49. Wall, A.(1999)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Comer, J. edit. (1999), Recovering Landscap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50. Wines, J.(1986) SITE, edited by A+U, Tokyo, A+U Co., Ltd.
 51. Wines, J.(1995) "Between Architecture and Landscape". Landscape Architecture (May 1995), pp.34-36.
 52. Zoh, Kyung-Jin(1993) An Exploration of Postmodernism in Contemporary Western Landscape Architecture. 한국조경학회지 21(1): 107-124.

원 고 접 수 : 2004년 9월 21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4년 11월 19일

4인익명 심사필